

## 성인여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성미 · 이영순<sup>1)</sup>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up>1)</sup>계명문화대학 식품과학과

성인여성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수준은 외식행동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성인여성으로 총 251명이었으며, 25~39세 58명(23.1%), 40~49세 151명(60.2%), 50~65세 42명(16.7%)이었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70.9%(178명), 고졸 이상이 29.1%(73명)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이 나타났다. 가정내 총수입은 160만원에서 290만원까지가 136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의 가정도 25.1%를 나타내었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43.8%, 직장 없는 전업주부가 56.2%를 나타내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 달에 드는 외식비는 5만원 미만이 5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외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교육수준 별로 보았을 때 고졸 및 고졸 이상 모두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위생부분은 비교적 적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별로 보았을 때는 고수입 집단에서 맛, 가격, 위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저수입 집단에서는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직장여성보다 전업주부에게서 맛, 영양, 위생, 시설 등이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외식비를 연령별로 분석할 때 40~49세가 6.4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39세의 6.22만원이었으며, 50~64세가 가장 낮아 4.17만원을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5.43만원, 고졸 이상이 7.49만원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외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수입별로 보면 고수입집단(300만원 이상)이 7.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입집단(160~290만원)이 6.10만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 직장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외식비가 높아 6.72만원을 나타내었다( $p<0.05$ ). 사용하는 식비는 40~49세의 연령층(49.27만원)이 두 집단(20~39세 44.14만원, 50~64세 45.23만원)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수입에 따른 식비의 경우, 고수입집단이 56.83만원, 중 집단 47.79만원, 저집단 35만원으로 유의적인 차이로( $p<0.05$ ) 고수입집단이 많았다. 식사균형 및 식 태도는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더욱 높은 점수를 보여(각각 $p<0.01$ ,  $p<0.05$ ), 전업주부가 더욱 올바른 식사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식비가 적은 집단이 식사균

형점수가 높았으며, 식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외식비에 따른 식비의 소비는 외식비가 높은 집단이 식비가 가장 많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

본 연구에서 외식비는 연령이 40~49세가 가장 높았고, 교육정도로는 고학력집단이 외식비가 많았으며, 수입별로는 고수입집단이 외식비가 많았다. 또한 직장 유무별로는 직장여성의 외식비가 많게 나타나 사회 경제적 변인이 외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